

■ (언론 동향) 2021.10.1. “농기자재신문” 보도

○ 무기질비료 국제원자재가격 급등세 꺾이지 않아

- 천연가스 가격 급등, 중국 비료수출 제한 등 영향
- 요소 76%, 염화칼륨 145%, 인산암모늄 74% 급등

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(NDRC)에서 농업생산과 식량안보로 자국내 비료 우선공급 촉구,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석탄사용 제한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, 유럽에서 천연가스 급등으로 비료공장 가동 중단, 인도의 입찰물량 증가 등 영향에 따른 수급 악화로 국제원자재 가격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.

요소는 중국의 내수가격 안정과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석탄사용 제한 등 요소물량 축소로 수출이 줄어들고 있고, 유럽의 천연가스 급등으로 영국 대형비료업체가 조업을 중단했으며, 인도가 4분기 요소물량 확보를 위한 대규모 입찰로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면서 요소가격은 급등하고 있다.

요소가격은 지난달 23일 기준 지난해 말 274\$/톤에서 482\$/톤으로 76% 폭등세를 보였고, 지난주 대비 8.8% 급등했다.

염화칼륨은 캐나다 광산 침수로 인한 조업 축소 및 벨라루스 수출제재 지속됨에 따라 브라질 CFR 760\$/톤, 호주 615\$/톤, 태국·베트남 625\$/톤으로 가격이 더 오르고 있어 지난 연말 235\$/톤에서 9월 23일 575\$/톤으로 145% 폭등세가 이어지고 있다.

인산암모늄(DAP)도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암모니아 가격의 상승세 지속과 중국 DAP 주산지인 운남성의 생산량 제한 지속과 선박운송 차질 등이 지속되면서 가격 급등세가 계속되고 있다. 지난 연말 365\$/톤에서 9월 23일 현재 634\$/톤으로 74% 급등, 가격 불안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.

한국비료협회 관계자는 “무기질비료 생산업체는 영농 안정을 위해 엄청난 영업적자에도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”며, “하지만, 생산업체들은 시설관리 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절감에도 한계에 다해 있다”고 밝혔다. 이어 “특히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대안을 찾지 못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”고 덧붙였다.

< 이창수 기자 >